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71호 [루게 제24949호] 주제104 (2015)년 6월 20일 (토요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꽃바구니 진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1돐을 맞으며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과 태양상을 찾았다.

조선로동당을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항도자로 강화발전시키고 우리 혁명을 백승의 한길로 이끌어 오신 걸출한 령도자이시며 회색의 정치권로이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다함없는 경모의 정에 넘친 군중들의 물결이 만수대언덕으로 끝없이 흘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꽃바구니가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앞에 놓여있었다.



창조하시고 우리 혁명의 천년미래를 담보하는 만년토대를 마련하신 백두산철새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기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리었다.

김일성종합대학,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인민무력부, 인민보안부, 만수대창작사를 비롯한 수도의 여러곳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과 태양상들에 인민군부대, 기관, 기업소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이 진정되었다.

각지 인민군장병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도 자기 고장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과 태양상을 찾았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한생이 어려있는 주체의 붉은 당기를 휘날리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폭풍쳐 내달려갈 열의에 넘쳐있었다.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인민무군 부대, 평양시내 각급 기관, 기업소, 공장, 학교 등의 명

으로 뒤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이 진정되었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등의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군중들은 탁월한 사상과 령도로 조선로동당의 성스러운 역사를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11일부터 14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리아 노보스토크통신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고사포병군관학교를 시찰하신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화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은령도자께서는 군관학교의 사상교양사업정형을 알아보시고 군인들의 식생활개선을 위해 꾸러진 버섯재배장, 종어장 등을 돌아보시었다.

그이께서는 학교에서 조선로동당의 방첩대교 포승사와 버섯재배도 잘하고 메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물고기를 길러내고있는데 대하여 말씀하시

면서 이것은 일군들이 당정책관철을 위해 얼마나 머리를 쓰고 노력하고있는가를 잘 보여준다고 하시었다.

그이께서는 고사포병군관학교가 전군의 본보기라고 말씀하시었다.

로씨야의 따스통신, 스프트니크방송, 인터넷TV (인르 24), 일본의 교도통신도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인디아신문 《아시아 카바르 데일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국해방전쟁사적지를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게재하였다.

\* \*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2일과 3일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일본의 교도통신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준공식을 앞둔 원산육아원, 애육원을 현지지도하신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화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원산육아원, 애육원을 건설단계때부터 여러차례 시찰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완공된 시설에 대해 만족을 표시하시고 부모없는 아이들을 돌봐주는 조선의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을 직관적으로, 용변적으로 과시하는 창조물이라고 말씀하시었다.

세네갈신문 《르 보르베르》,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민주공화국주체사상연구 전국위

원회 인터넷홈페이지, 도이쉴란드 반제연단 인터넷홈페이지 《현지지도소식들》도 이 소식을 게재하였다.

로씨야의 따스통신은 김정은령도자께서 원산육아원, 애육원건설에서 로력적위훈을 세운 군인건설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다고 하면서 그이께서는 군인건설자들의 위훈을 거듭 높이 평가하시었다고 보도하였다.

도이쉴란드연단 인터넷홈페이지 《현지지도소식들》도 이와 같은 소식을 올렸다.

민주공화, 도이쉴란드의 인터넷홈페이지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헌들을 모시었다.

본사기자

## 조선해방 70돐과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아시아태평양지역준비위원회 결성

조선해방 70돐과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아시아태평양지역준비위원회가 8일에 결성되었다.

준비위원회 명예위원장들로 전네팔정부 수상 마다르 쿠마르 네팔, 인도네시아 수카르노교육재단 창립위원회 위원장 라흐마와미 수카르노부트르가, 공동위원장들로 조선평화통일지지 아시아태평양지역위원회 공동위원장 피터 우즈, 조

선의 자주적평화통일지지 일본위원회 회장 히로미 후미히로, 전 파키스탄국회 상원 의원 아마르 지트 말호트라, 방글라데슈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라제드 칸 메논이, 부위원장들로 뉴질랜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협회 위원장 돈 보리, 인도네시아선봉자당 중앙지도자 조흥서기 리스미안도, 네팔공산당

서 씨. 피. 마이날리, 캄보디아인민당 대외관계위원회 위원장 요스 쏘이 선출되었다.

준비위원회에는 인디아, 웨남, 필리핀, 타이, 스페인, 몽골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각계 인사들이 위원들로 망라되었다.

준비위원회 결성과 관련한 성명이 발표되었다.

【조선중앙통신】

##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선거구, 분구들 조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각급 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법에 따라 19일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선거구, 분구들이 조직되었다.

【조선중앙통신】

## 공구재료발전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자랑찬 성과

김책공업종합대학 재료연구소에서 첨단수준의 섬유강화사기공구의 국산화 실현, 인민경제 수십개 단위로 도입성과 확대

뜻깊은 10월의 대추정장을 빛내기 위한 총공격전의 불길이 발을 따라 세차게 타오르는 속에 나라의 공구재료분야에서도 100% 우리의 원료, 우리의 기술로 첨단들을 돌파하는 과학기술성과가 이룩되었다.

김책공업종합대학 재료연구소의 연구자들이 우리 나라의 무진장한 원료에 의거하여 발전된 몇개 나라들이 독점한 사기공구재료의 기능성섬유강화제인 탄소섬유강화사기공구를 확보하였다. 그에 토대하여 이곳 연구집단은 평양방직기계공장과 합남지구의 어느 한 기업소와의 긴밀한 협력밑에 첨단수준의 섬유강화사기공구 생산기지를 꾸리고 인민경제 수십개 단위로 CNC공작기계를 비롯한 각이한 기계들과 소재에 따르는 해당 공구의 절삭조건들을 과학기술적으로 확충하였다.

우리 나라 공구재료발전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여 기능성섬유강화사기공구의 국산화를 실현하고 그 응용의 넓은 길을 열어놓은 이 자랑찬 성과는 창건 70돐을 맞는 어머니땅에 드리는 우리 과학자들과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총정의 열매로서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품어주어 마련해주신 자립적기계공업의 위력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며 나라의 종합적국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데 적극 기여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과학기술이라는 기관자를 앞세우고 모든 부문이 세계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구재료들은 공기와 닭음전달성이 높으면서도 기계적타격에 견디는 성질과 절삭성이 충분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고속도강, 경질합금, 사기, 텅스텐화합물, 금강석과 같은 공구재료중에서 이 모든 특성을 만족시키는 것은 없다. 공구재료의 기본특성인 공기와 절삭성이 반비례관계에 있는 것으로 하여 가공실현에서는 소재의 특성과 공구원가를 타산하여 알맞은 공구재료를 선택하고있다.

1930년대말부터 공업적인 절삭공구로 쓰이기 시작한 사기공구의 발전력은 전통적인 공구재료인 고속도강이나 경질합금보다 원료원천이 무진장하고 굳은 우점을 살리면서 절삭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흘러왔다. 이런 과정에 첨단기술성과가 도입되어 태어난 탄소섬유강화사기공구는 보통 사기공구보다 절삭성이 훨씬 개선되어 절삭정확성이 부단히 확대되어왔으며 오 늘날에는 사기공구재료발전의 기본추동력으로 되고있다.

공구혁명을 일으키기 위한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김책공업종합대학 재료연구소의 조준영실장을 책임자로 하는 연구집단은 대학당조직의 지지와 방조속에 지난 10여년간 발전된 몇개 나라의 독점물로 되어있는 탄소섬유강화사기공구 생산기지를 개발도입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왔다.

특히 인민경제의 주체화, 국산화를 더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데 대한 당의 의도를 심장에 새긴 연구집단은 최근년간 탄소섬유강화사기공구 100% 우리의 원료에 의거하여 생산하기 위한

연구사업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 분야 의 과학기술성과들에 대한 깊은 연구와 창조적사색을 거듭하는 과정에 그들은 지난 시기 수입에 의존하던 원료를 전혀 쓰지 않으면서도 국내에 흔한 농업부산물들을 처리하여 탄소섬유강화제인 탄소섬유강화사기공구를 개발도입하는데 이룩한 성과가 주목된다. 연구집단은 그에 기초하여 필요한 설비들을 갖추고 분리정제공정을 확립함으로써 100% 우리의 원료와 기술에 의거하여 순도높은 탄소섬유강화제인 탄소섬유강화사기공구 생산기지를 개발도입하는데 성공하였다.

이 나날에 애국충정으로 불타는 심장에 새겼을 지향하는 높은 창조적열정을 더하면 절망 못할 첨단들의 요소가 없지않은 절감한 연구집단은 사기공구재료의 기본원료인 알루미나의 나노화합물을 받아들이는데 이어 탄소섬유강화제인 탄소섬유강화사기공구 생산기지를 개발도입하는데 이룩한 성과가 주목된다.

국산화된 첨단수준의 섬유강화사기공구의 성과적인 개발도입은 과학기술발전의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심장에 새기고 이곳 연구집단과 마음과 힘을 합친 인민경제 여러 단위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의 창조적투쟁이 안아온 자랑찬 결실이다.

합남지구의 어느 한 기업소 책임일군들은 이들의 연구사업을 물심양면으로 도와 사기재료개발사업의 필수적인 설비인 진공가열프레스를 성과적으로 제작하도록 한데 이어 그 운영조건을 충분히 보장해주었다. 당조직

의 지도밑에 평양방직기계공장 공구제작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업적이 깃든 일터에서부터 웅망히 공구혁명의 불길이 타올라야 한다는 드높은 각오밑에 떨쳐나 연구집단이 제시한 열처리기술 및 기계가공기술공정을 정확히 수행함으로써 국제규격에 맞는 14종의 첨단수준의 조립식바이드들을 생산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락원기계연합기업소, 안주공작공장, 문원발표공장을 비롯한 인민경제 수십개 단위 일군들과 기술자, 기능공들도 새로운 사기공구의 도입시범을 자기 일터면 여기고 성실성이껏 도와나섰다.

100% 우리의 원료, 우리의 기술로 첨단수준의 기능성탄소섬유강화제인 탄소섬유강화사기공구를 개발도입하는데 이룩한 성과가 주목된다. 이번이 이곳 연구집단이 섬유강화사기공구들을 개발도입한 것은 우리 나라 공구재료발전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자랑찬 한 성과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는 이미 고속도강, 경질합금, 텅스텐화합물, 증착공구생산도구가 구비되어있다. 이번이 이곳 연구집단이 우리 나라에 풍부한 원료들을 리용하여 첨단수준의 사기공구재료를 국산하고 공구생산기술을 확립함으로써 나라의 공구생산도구를 하나도 빠진것없이 그치지 갖추어놓을수 있는 전망이 확고히 열리었다.

새로운 우리의 사기공구혁명은 공구기와 닭음전달성, 절삭성 등 모든 기술적지표들에서 발전된 나라들의 제품과 당당히 어깨를 겨루면서도 그 가격이 1/4정도인것으로 하여 국내에서 그

리용범위가 부단히 확대되고있다. 우선 고속화를 지향하면서 기계가공의 높은 정밀도와 절삭도를 요구하는 CNC공작기계에 가장 적합한 절삭공구로 수요자로부터 호응을 받고있다.

락원기계연합기업소 유압기공작장의 CNC유압6호선반에서 강철소재의 선삭에 이 공구를 리용해본데 의하면 공구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뜻깊은 수인인증작공구에 비하여 공구마모가 훨씬 적어 생산성을 1.6배나 높일수 있었다고 한다.

섬유강화제 절삭성이 훨씬 개선된 새로운 사기공구를 리용하면 또한 열처리강, 백색주철을 비롯한 고경도소재와 난삭성소재는 물론 니켈바탕의 합금소재들도 일반절삭기계들에서 높은 정밀정도로 가공할수 있다.

어느 한 기계공장에서는 만능공작기계에 이 공구를 설치하여 열처리된 연마면공을 빠른 시간에 진행함으로써 초정밀메이킹의 불생산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평양방직기계공장에서는 지난 시기 경질합금공구로 깎을수 없었던 광간형타강소재의 선삭과 나사치기에 이 사기공구를 리용하여 결면정도를 7급으로 보장하였다.

우리 나라 공구재료발전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김책공업종합대학 재료연구소 연구집단은 지금 편관단위들과의 창조적협조밑에 탄소섬유강화사기공구재료의 질을 한단계 끌어올리고 인민경제적수요에 맞게 다중화, 다양화된 사기공구절삭바이드들을 개발생산하기 위한 높은 목표를 내걸고 첨단들과 관련 더욱 과감히 뛰어들고있다.

본사기자 리병춘

있게 세우고있다. 이들은 한사람같이 떨쳐나서 뽐발들에 수천개의 글로와 물음을 파고 양수설비들을 보수정리하여 관수를 보장하고있다.

이와 함께 화학비료주기, 김매기 등 뽐발비료관리를 앞세워 하고있다. 그리하여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뽐발수가 2-3일이나 더 늘어나 정보당 뽐발생산량이 계속 높아지고있다.

일군들은 지난 5월 25일까지 누에알공급을 끝낸데 이어 1만여개의 누에판리공알과포를 만들어 잠업공정, 잠업전문협동농장, 고치농장, 협동농장들의 잠업작업반들에 내려보내 주어 누에치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의 잠업부문 일군들은 올해 누에치기생산목표를 거기에 수행하기 위해 년초부터 뽐발비료배분, 누에치기준비를 철저히 하고있었다. 도의 잠업부문 일군들은 천수백 t의 화학비료와 효능높은 벌레잡이약, 배양식분무기, 야외잠실건설에 요구되는 비닐막과 소독약들을 마련하여 도안의 잠업농장, 잠업전문협동농장, 고치농장과 협동농장들의 잠업작업반들에 공급해주었다.

도안의 잠업부문 농업근로자들은 질 좋은 거름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헌신적투쟁을 벌려 뽐발 정보당 20t의 유기질거름과 5t 이상의 흙보산비료를 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농업근로자들은 정보당 뽐발 생산을 늘이는것과 함께 가물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도 예견성

【조선중앙통신】

### 누에치기

이와 함께 화학비료주기, 김매기 등 뽐발비료관리를 앞세워 하고있다. 그리하여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뽐발수가 2-3일이나 더 늘어나 정보당 뽐발생산량이 계속 높아지고있다.

일군들은 지난 5월 25일까지 누에알공급을 끝낸데 이어 1만여개의 누에판리공알과포를 만들어 잠업공정, 잠업전문협동농장, 고치농장, 협동농장들의 잠업작업반들에 내려보내 주어 누에치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의 잠업부문 일군들은 올해 누에치기생산목표를 거기에 수행하기 위해 년초부터 뽐발비료배분, 누에치기준비를 철저히 하고있었다. 도의 잠업부문 일군들은 천수백 t의 화학비료와 효능높은 벌레잡이약, 배양식분무기, 야외잠실건설에 요구되는 비닐막과 소독약들을 마련하여 도안의 잠업농장, 잠업전문협동농장, 고치농장과 협동농장들의 잠업작업반들에 공급해주었다.

도안의 잠업부문 농업근로자들은 질 좋은 거름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헌신적투쟁을 벌려 뽐발 정보당 20t의 유기질거름과 5t 이상의 흙보산비료를 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농업근로자들은 정보당 뽐발 생산을 늘이는것과 함께 가물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도 예견성

【조선중앙통신】

# 우리 당력사에 길이 빛날 6월 19일

6월 19일은 우리 천만군민이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당건설업적을 감회깊이 추억하면서 뜻깊게 경축하는 경사의 날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6월 19일의 역사적 의미를 우리들은 실지 생활체험을 통하여 얼마나 뜨겁게, 질질하게 새겨안았는가.

지난해 6월 18일이였다. 뜻깊은 6월 19일을 하루 앞둔 그날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의 력사에 길이 빛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당건설업적에 대하여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6월 19일을 뜻깊게 경축함으로써 500년, 5,000년이 지난 후에도 이 땅위에 장군님의 위대한 사상과 령도의 력사가 변함없이 영원히 흐르도록 하여야 합니다.》

주체53(1964)년 6월 19일, 이날을 때려놓고는 온할수 없는것이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력사이다. 승리와 영광, 행복으로 가득찬 우리의 어제와 오늘만이 아니라 더욱 광명넘칠 때일을 10월 10일과 함께 6월의 이 뜻깊은 명절이 다 말하여주고있다.

주체혁명위업의 새로운 력사적시기가 장엄히 펼쳐지던 1964년은 격동의 해였다.

사회주의건설의 거창한 현실속에서 전설의 천리마가 기적과 혁신들을 불러오던 날이였다. 조선로동당의 정치와 우리 인민의 생활은 더욱 가까워지고 당에 대한 인민의 신뢰와 칭송의 목소리는 높아가고있었다.

뜻깊은 그해의 6월 19일,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너무도 조용히 당중앙위원회청사에 들어서시였다.

오늘도 당보지면에 모신 위대한 장군님의 사진문헌은 우리들로 하여금 뜻깊은 6월 19일 집무실에서 한밤을 꼬박 지새우신 그이께서 밝아오는 새날을 맞으시던 그 순간의 력사적회색을 가슴뜨겁게 안아보게 하고있다.

그날 우리 장군님께서 자신의 심정을 펄펄 휘날리는 붉은 당기폭에 담으시며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우리 력사의 붉은 기발과 함께 걸어온 가장 영광스럽고 빛나는 력사입니다. 우리 당기발에는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가 그대로 비껴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저 붉은 기발을 높이 휘날려나가야 합니다. ...

바로 그날로부터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시 혁명의 참모부인 당중앙청사에서 우리 당력사에 글문자로 아로새겨질 사본들이 설계되였다.

선한 로동계급의 100년사상사를 분석총화하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로, 오직 어버이수령님의 존함으로만 부를수 있는 자주시대 혁명의 지도사상으로 정식화하신 우리 장군님의 업적을 오늘도 우리를 밝히려 기세차게 떠오르는 주체사상관의 불빛에 응연오도 말해주고있다.

주체사상관을 틀어놓은 어느 나라의 대통령에게서도 7대기적, 5대기적, 3대기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 나는



조선로동당 제3차 사상일군대회에서 결론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63(1974)년 2월

그 첫자리에 주체사상관을 꼽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체사상관은 기념비의 표준이라고 한 말속에는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발전봉부화시켜나가기 위하여 모든 심혈을 기울이신 우리 장군님의 불멸의 공적에 대한 다함없는 격찬이 비껴있다.

자신께서 확창시절부터 읽은 책을 차곡차곡 쌓아놓는다면 주체사상관을 고이고있는 대들만큼 될지도 모른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추억의 교사가 지금도 우리의 귀전에 승업히 울려온다.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로 우리 당을 모든 승리와 영광의 향도자로 되게 하여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손길아래 이 땅에는 또 얼마나 눈부신 창조와 기적의 전대기들이 수놓아졌는가.

우리 인민들이 눈시울까지 부르던 당중앙의 불빛에 대한 노래와 더불어 위대한 1970년대와 1980년대가 대통령이 세계적으로 7대기적, 5대기적, 3대기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 나는

으로 이룩한 사회주의대건설전투의 빛나는 승리로, 80년대속도창조의 불길속에 더욱 강화된 사회주의자립경제의 위력도 6월 19일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당을 대중과 혼연일체가 되어 전진하는 혁명적당으로,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대중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진투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자는 주체혁명의 혁명적당건설에서 이룩된 가장 고귀한 성과의 하나라는데 대하여 뜨겁게 강조하시였다.

우리 당을 어머니당으로! 여기에 조선로동당의 위력한 힘의 원천이 있다.

현저지도의 그 바쁘신 길에서도 인민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한 일군들을 만나시면 그리고 기뻐하시며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시고 인민의 리익을 조금이라도 침해하고 인민을 존중할줄 모르는 일군의 사업작품에 대해서는 추호의 용서도 모르신분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한 일군이 인민들을 호령하고 속되게 한것을 두고 너무도 분격하시어 우리 수령님 한평생 하부로 반드시 인민인데 동무가 뛰질때 그우에 군림하여 호령하고 하대하는가고 그리고 엄하게 질책하시며 그 인민에게 사죄해야겠다고 길을 떠나신 잊지 못할 그날처럼 우리 장군님께서서는 낮이나 밤이나 인민을 찾고 또 찾으시였다.

당과 인민사이의 관계는 당이 인민대중의 어머니로서 인민대중을 귀중히 여기고 극진히 사랑할 때 가장 공고하고 위력한것으로 될수 있다. ...

로동계급의 당과 사회주의정권의 본질은 무엇보다도 인민의 복무자라는데 있다. ... 우리 당의 인덕정치는 각계각층의 인민들에게 차별없이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는 나루이고 인민의 리익을 조금이라도 침해하고 인민을 존중할줄 모르는 일군의 사업작품에 대해서는 추호의 용서도 모르신분 위대한 장군님의 품속에서 우리 인민

모두가 인생의 아름다운 삶을 꽃피우지 않았던가.

... 그는 어머니! 피도 숨결도 다 나누어주고 운명도 미해도 다 맡아안아주며 바람도 비도 죽음까지도 다 막아나서주는 우리들의 어머니 ...

한 시인이 터친 이 유명한 서정시의 구절은 결코 예술창작의 산물이 아니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품속에서 인생의 가장 값 높은 영광도 행복도 누린 이 나라 인민 모두의 체험이 낳은 당에 대한 전인민적애가였다.

돌이켜보면 우리 세대에게는 조선로동당과 사회주의조국의 운명, 자신의 운명이 어떤 혈연으로 굳건히 연결되었는가를 뼈저리게 깨닫게 해준 그런 귀중한 체험이 있다. 1990년대 우리 당과 혁명앞에는 커다란 시련과 난관이 가로놓였다. 제국주의

앞에 굴복하여 사회주의나라 당들이 자기의 붉은 기발을 내리우는 비극적사태가 연이어 벌어졌다.

그러나 우리의 당중앙청사의 붉은 당기발은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품어안고 더욱 거세차게 펄럭이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있어서 천만의 식량보다 더 귀중한 신념의 기둥, 희망의 표대라 된 당기발의 위대한 기수는 김정일동지시였다.

말하라, 선군의 산악들과 강계의 눈보라 길이며!

이야기하라, 피눈물의 12월의 함박눈이여!

《높이 들자 붉은기》 노래와 함께 우리 장군님께서 붉은 당기발을 혁명의 기치로 더욱 높이 추켜드시고 넋고 헤치신 그 무수한 전진길의 산발들과 강행군길이 있어 이 땅에 끝끝내 승리의 새봄이 찾아오지 않았던가.

자신의 한생을 불길처럼 태우시어 강성국가의 러명을 불려오신 우리 장군님께서 함박눈 펄럭 쏟아지던 피눈물의 12월에 이 나라 인민모두를 울리며 안고 가신것도 조선로동당의 붉은 기발이 아니였던가.

진정 우리 장군님께서 조선로동당을 이끌어오신 수심성상이아말로 력사가 잊혀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전진길을 완강히 헤치고 혁명적당건설의 본보기를 창조하시어 조국과 혁명, 인민의 운명에 오직 승리와 영광만을 새겨준 위대한 향도자의 영웅사사적행로이다.

바로 그래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조국과 혁명앞에 쌓아올린 가장 고귀한 공적으로 경건히 추억하는것이며 천추만대 길이 빛내여갈 불같은 맹세를 다지고 또 다지는 것이다.

오늘도 태양의 환한 미소로 우리의 앞길을 축복해주고계시는 우리 장군님의 거룩한 영상을 승업히 우리들면 경애하는 원수님의 간곡한 말씀이 매어리되어 울려온다.

우리는 장군님을 영원히 우리 당의 총비서로 높이 모셔야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전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갈수 있습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의 직함은 세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오직 장군님께서만이 지니셔야 합니다. ...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을 위대한 김정일,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영원히 빛내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응집은 의지속에 어이하여 6월 19일이 10월 10일과 더불어 우리 당력사에 특기할 기념일로 되는가에 대한 대담이 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품, 조선로동당의 품에 운명의 피를 보고 살아있는 지난날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지금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장군님의 업적을 추억하고있다.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이 창건 일흔흔을 맞는 올해 주체 104 (2015)년의 6월 19일은 더욱더 류타른 감회와 뜨거운 격정을 불러일으키며 우리의 심장을 흔들고있다.

력사의 6월 19일은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명절로 길이 빛내여갈 천만군민의 맹세의 불꽃인양 붉은 당기발은 오늘도 세차게 펄럭인다. 본사기자 백영미

## 수필

### 당중앙청사의 붉은 당기를 우리들 곁에

우리는 지금 당중앙 위원회청사에서 새창이 나뉘는 붉은 당기를 바라보고 있다. 찬바람, 눈비속에서도 피색도 변색도 없이 언제나 불꽃같은 노을빛마당 빛을 뿌리는 우리의 당기, 세월의 모진 풍파속에서도 그 세찬 피덕일을 한번도 떨추어본적이 없는 기발은 과연 무엇을 말하여 주고있는 것인가.

우리의 눈앞에 우뚝이 안겨오는 화폭이 있다.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유전에서 남다른 모범을 보인 근로자들과 수령결사옹위 의 향로에서 영웅적위훈을 떨쳐가고있는 군인들과 함께 조선혁명의 최고참모부인 당중앙위원회에서 사랑의 기념사건을 찍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어찌하여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다른 어느곳도 아닌 붉은 당기가 펄럭 휘날리는 당중앙위원회에 그들을 부르시어 기념사건을 찍으시는것인가. 우리 군대와 인민이 그이와 함께 찍은 기념사건이 이 세상에 더없는 재보로 값높이 여기고있는것은 무엇때문인가.

우리 혁명의 승리와 영광의 표대인 붉은 당기에 어버이장군님의 한평생의 넋이 비껴있고 우리 장군님의 숨결과 체취가 오늘도 생생히 숨쉬어있는 곳이 바로 당중앙위원회이기 때문이리라.

우리 혁명의 승리와 영광의 표대인 붉은 당기에 어버이장군님의 한평생의 넋이 비껴있고 우리 장군님의 숨결과 체취가 오늘도 생생히 숨쉬어있는 곳이 바로 당중앙위원회이기 때문이리라.

우리는 지금 당중앙 위원회청사에서 새창이 나뉘는 붉은 당기를 바라보고 있다. 찬바람, 눈비속에서도 피색도 변색도 없이 언제나 불꽃같은 노을빛마당 빛을 뿌리는 우리의 당기, 세월의 모진 풍파속에서도 그 세찬 피덕일을 한번도 떨추어본적이 없는 기발은 과연 무엇을 말하여 주고있는 것인가.

## 온 나라에 울리는 어머니의 목소리

### 가장 숭배하는 스승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주체53(1964)년의 겨울 어느날이였다. 한 일군을 부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시내의 교통문제를 풀 방도에 대하여 물으시였다.

일군은 갑자기 방도가 떠오르지 않아 한주일만에 대책안을 제기하겠다고 말씀드리였다. 일군을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저녁 8시에 선생님께서 조연을 받으러 가라고 이르시였다.

그날 저녁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 일군과 함께 시내를 돌고다니시며 시인시적으로 생각해봐 위대한 장군님께 보고드릴 문건의 맨 마지막에 간단히 한줄 써넣었다.

문건을 드린지 얼마 안되어 한 일군은 위대한 장군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였다. 일군은 별치 않은 문제로 그이께 부담을 끼친 자기의 《실수》를 돌이켜보며 장군님

6월 19일,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이날을 경사스러운 날로 뜻깊게 경축하고 있다.

어찌 그렇지 않으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로동당의 력사는 당의 창건자이신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이며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계승하여오신 장군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입니다.》

하나의 이야기가 되새겨진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하시게 되였다

## 모든 것의 첫 자리

### 가장 숭배하는 스승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주체53(1964)년의 겨울 어느날이였다. 한 일군을 부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시내의 교통문제를 풀 방도에 대하여 물으시였다.

일군은 갑자기 방도가 떠오르지 않아 한주일만에 대책안을 제기하겠다고 말씀드리였다. 일군을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저녁 8시에 선생님께서 조연을 받으러 가라고 이르시였다.

그날 저녁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 일군과 함께 시내를 돌고다니시며 시인시적으로 생각해봐 위대한 장군님께 보고드릴 문건의 맨 마지막에 간단히 한줄 써넣었다.

문건을 드린지 얼마 안되어 한 일군은 위대한 장군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였다. 일군은 별치 않은 문제로 그이께 부담을 끼친 자기의 《실수》를 돌이켜보며 장군님

6월 19일,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이날을 경사스러운 날로 뜻깊게 경축하고 있다.

어찌 그렇지 않으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로동당의 력사는 당의 창건자이신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이며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계승하여오신 장군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입니다.》

하나의 이야기가 되새겨진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하시게 되였다

## 그날은 평범한 날이 아니였다

### 가장 숭배하는 스승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주체53(1964)년의 겨울 어느날이였다. 한 일군을 부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시내의 교통문제를 풀 방도에 대하여 물으시였다.

일군은 갑자기 방도가 떠오르지 않아 한주일만에 대책안을 제기하겠다고 말씀드리였다. 일군을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저녁 8시에 선생님께서 조연을 받으러 가라고 이르시였다.

그날 저녁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 일군과 함께 시내를 돌고다니시며 시인시적으로 생각해봐 위대한 장군님께 보고드릴 문건의 맨 마지막에 간단히 한줄 써넣었다.

문건을 드린지 얼마 안되어 한 일군은 위대한 장군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였다. 일군은 별치 않은 문제로 그이께 부담을 끼친 자기의 《실수》를 돌이켜보며 장군님

6월 19일,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이날을 경사스러운 날로 뜻깊게 경축하고 있다.

어찌 그렇지 않으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로동당의 력사는 당의 창건자이신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이며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계승하여오신 장군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입니다.》

하나의 이야기가 되새겨진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하시게 되였다

## 우리 당의 본분

### 가장 숭배하는 스승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주체53(1964)년의 겨울 어느날이였다. 한 일군을 부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시내의 교통문제를 풀 방도에 대하여 물으시였다.

일군은 갑자기 방도가 떠오르지 않아 한주일만에 대책안을 제기하겠다고 말씀드리였다. 일군을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저녁 8시에 선생님께서 조연을 받으러 가라고 이르시였다.

그날 저녁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 일군과 함께 시내를 돌고다니시며 시인시적으로 생각해봐 위대한 장군님께 보고드릴 문건의 맨 마지막에 간단히 한줄 써넣었다.

문건을 드린지 얼마 안되어 한 일군은 위대한 장군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였다. 일군은 별치 않은 문제로 그이께 부담을 끼친 자기의 《실수》를 돌이켜보며 장군님

6월 19일,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이날을 경사스러운 날로 뜻깊게 경축하고 있다.

어찌 그렇지 않으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로동당의 력사는 당의 창건자이신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이며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계승하여오신 장군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입니다.》

하나의 이야기가 되새겨진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하시게 되였다

## 가장 숭배하는 스승

### 가장 숭배하는 스승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주체53(1964)년의 겨울 어느날이였다. 한 일군을 부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시내의 교통문제를 풀 방도에 대하여 물으시였다.

일군은 갑자기 방도가 떠오르지 않아 한주일만에 대책안을 제기하겠다고 말씀드리였다. 일군을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저녁 8시에 선생님께서 조연을 받으러 가라고 이르시였다.

그날 저녁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 일군과 함께 시내를 돌고다니시며 시인시적으로 생각해봐 위대한 장군님께 보고드릴 문건의 맨 마지막에 간단히 한줄 써넣었다.

문건을 드린지 얼마 안되어 한 일군은 위대한 장군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였다. 일군은 별치 않은 문제로 그이께 부담을 끼친 자기의 《실수》를 돌이켜보며 장군님

6월 19일,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이날을 경사스러운 날로 뜻깊게 경축하고 있다.

어찌 그렇지 않으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로동당의 력사는 당의 창건자이신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이며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계승하여오신 장군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입니다.》

하나의 이야기가 되새겨진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하시게 되였다







# 뜨거운 인정미에 매혹되어

위대한 길잡이들은 우리의 인민만이 아니라 정경과 신앙, 사상과 제도를 초월하여 만민을 한몸에 안아주시는 인류의 자애로운 어머니이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넓은 도량과 포용력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전에 수많은 외국의 벗들과 친교를 맺으시고 그들에게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하기에 우리 수령님을 만나본 사람들은 그 누구나 다 그 아시아말로 뜨거운 사랑과 인정미를 지니신 인간중의 인간, 위인중의 위인이시라고 격동된 심정을 터져내곤 하였다.

그런 사람속에 있는 일본 《미라이》 사장이었던 니시다니 요시오이다.

그가 우리 나라에 처음으로 찾아온것은 주제 59(1970)년 6월 어느날이었다.

우리 나라에 체류하는 동안 그는 평양시의 여러곳을 참관하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업적에 대하여 책으로만 아닌 실제 체험을 통하여 가슴깊이 느끼었다. 평양 방문을 통하여 그는 우리 인민에 대하여, 널리 장성화되어 우리 공화국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었다.

어느덧 시일이 흘러 귀국날자가 다가왔다. 일본에 있을 때부터 그렇게도 열망하였고 또 우리 나라에 와서도 그렇게도 고대하던 수령님을 만나뵙는 소원을 이루지 못한채 떠나야 하는 그의 마음은 커다란 공허감과 아쉬움으로 가득차 있었다.

그의 이러한 속마음을 헤아려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수령님이시었다.

6월 23일 니시다니 요시오는 고향에도 그리던 위대한 수령님을 처음으로 만나뵙는 영광을 지니고 있었다.

송송차 타고 내각정사에 도착한 니시다니 요시오는 승강기에 오르는 순간까지도 모든것이 꿈만 같아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다.

이윽고 승강기문이 열렸다. 순간 그는 너무나도 뜻밖의 사실 앞에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시고 승강기앞에 서시어 있었다.

(한 나라의 수령이 한개 출판사 사장에 불과한 나를 이렇게 뜨겁게 맞아주시다니!) 그의 심정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별바를 물라하는 그의

심정을 헤아리신듯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고 함께 기념촬영을 하라고 하시었다.

니시다니 요시오는 설레이는 마음을 억누를 수 없었다. 사진기의 섬광들이 번쩍거렸다. 이윽고 그는 절정설로 안내되었다.

그에게서는 미제침략군과 남조선피괴군의 도발행동이 바다와 육지에서 끊임없이 감행되고 있는 데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이런 총출이 1년에도 수천번이나 된다고, 그로 하여 지금 적지 않은 자금을 국방에 산지출로 돌려야 하는데 긴장상태가 해소되면 그 자금은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돌려질 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

그에게서는 미제침략군과 남조선피괴군의 도발행동이 바다와 육지에서 끊임없이 감행되고 있는 데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이런 총출이 1년에도 수천번이나 된다고, 그로 하여 지금 적지 않은 자금을 국방에 산지출로 돌려야 하는데 긴장상태가 해소되면 그 자금은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돌려질 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

이어서 수령님께서 니시다니 요시오여행에 대한 결점이 왜 이루어졌는가에 대하여 친절하고 성의있게 이야기해주시었다. 그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사실 니시다니 요시오는 갑보자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 친왕이 공화국을 방문하고 있는 것과 세계 각국의 당파 정파의 지도자들이 편이여 조선을 방문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수령님께서 얼마나 바쁘신 나날을 보내고계시는가에 대해서도 결코 생각 못

하진 않았다.

그러나 향배를 구하시듯 차근차근 설명해주시는 수령님의 고매한 품모에 니시다니 요시오는 그만 눈시울이 젖어들었다.

수령님께서는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도 설득력있게 이야기해주시었다.

그에게서는 미제침략군과 남조선피괴군의 도발행동이 바다와 육지에서 끊임없이 감행되고 있는 데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이런 총출이 1년에도 수천번이나 된다고, 그로 하여 지금 적지 않은 자금을 국방에 산지출로 돌려야 하는데 긴장상태가 해소되면 그 자금은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돌려질 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

이어서 수령님께서 니시다니 요시오여행에 대한 결점이 왜 이루어졌는가에 대하여 친절하고 성의있게 이야기해주시었다. 그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사실 니시다니 요시오는 갑보자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 친왕이 공화국을 방문하고 있는 것과 세계 각국의 당파 정파의 지도자들이 편이여 조선을 방문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수령님께서 얼마나 바쁘신 나날을 보내고계시는가에 대해서도 결코 생각 못

하진 않았다.

그러나 향배를 구하시듯 차근차근 설명해주시는 수령님의 고매한 품모에 니시다니 요시오는 그만 눈시울이 젖어들었다.

수령님께서는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도 설득력있게 이야기해주시었다.

그에게서는 미제침략군과 남조선피괴군의 도발행동이 바다와 육지에서 끊임없이 감행되고 있는 데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이런 총출이 1년에도 수천번이나 된다고, 그로 하여 지금 적지 않은 자금을 국방에 산지출로 돌려야 하는데 긴장상태가 해소되면 그 자금은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돌려질 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

이어서 수령님께서 니시다니 요시오여행에 대한 결점이 왜 이루어졌는가에 대하여 친절하고 성의있게 이야기해주시었다. 그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사실 니시다니 요시오는 갑보자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 친왕이 공화국을 방문하고 있는 것과 세계 각국의 당파 정파의 지도자들이 편이여 조선을 방문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수령님께서 얼마나 바쁘신 나날을 보내고계시는가에 대해서도 결코 생각 못

# 주조미의 열매를 맛볼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어머니당의 파사로는 사랑속에 인민대중이 사회의 당당한 주인으로 되어 온갖 정치적자유와 권리를 참답게 행사하고 자주적인 삶을 마음껏 향유하고있는 조선의 사회주의제도에 대해 《인민문제》란 애당초 제기조차 될수 없다.

반대로 인민문제는 인민을 등진 반역분자들이 권력의 자리를 차지하고있는 남조선에서 심각하게 제기되고있다.

사상 류레없는 독재통치로 인민들의 초보적인 민주주의적권리마저 강고히 유린당하며 남조선은 세계최악의 인권유린현무장으로, 민생폐허까지 만든 특등인권범죄자들이 주재해도 그 누구의 《인민》을 떠드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이고 가소로운 일이 아닐수 없다.

인도네시아신문 《인라내셔널 메디아》는 《조선사회의 안정성》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일부 서거가 없는 악조건에 불과하다고, 사회경제적권리보장이 없어서 조국은 자본주의 나라들에 비할바없이 우월하다.

조선인민주의 인민공화국처럼 정치안정성을 발휘하고있는것은 지명만 리치인이라고 하면서 신문은 수령, 당, 대중이 하나의 운명공동체를 이루고있는 조선사회의 일심단결의 중심은 바로 김정은령도자이다. 조선인민은 이러한 사회제도를 농동자와 같이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고있으며 그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죽슴도 서슴없이 바칠 일념에 넘쳐있다고 평하였다.

로씨야신문 《리오 빠노라마》는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평양학생소년공진대 만경대학생소년공진대, 개성학생소년공진대를 비롯하여 이르는 곳마다 아이들을 위한 궁전들이 있고 송도원과 묘향산, 풍악산 등 수많은 명승지들마다에 야영소들이 훌륭히 건설되었다.

최근에 새로 건설된 평양유아원, 애육원은 조선의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직관적으로, 영연적으로 보여주고있다.

그 어느 나라, 어느 민족사에도 부모없는 아이들을 위해 이처럼 훌륭한 공원을 마련해준 사실은 없다.

이 나라 신문 《나호트킨스키 라보치》도 미국이 세기를 이어가며 바라는 사회주의조선의 《봉기》는 영원히 실현될수 없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로, 사회주의조선이 위대한 수령을 모신대 있었음으로써, 특출한 지도자로서 사상, 일심단결, 인민적정책으로 꼽았다.

사람중심의 주체사상에 의하여 함양되는 조선사회가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속에 최상의 정치적안정성을 발휘하고있는것은 지명만 리치인이라고 하면서 신문은 수령, 당, 대중이 하나의 운명공동체를 이루고있는 조선사회의 일심단결의 중심은 바로 김정은령도자이다. 조선인민은 이러한 사회제도를 농동자와 같이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고있으며 그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죽슴도 서슴없이 바칠 일념에 넘쳐있다고 평하였다.

로씨야신문 《리오 빠노라마》는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평양학생소년공진대 만경대학생소년공진대, 개성학생소년공진대를 비롯하여 이르는 곳마다 아이들을 위한 궁전들이 있고 송도원과 묘향산, 풍악산 등 수많은 명승지들마다에 야영소들이 훌륭히 건설되었다.

최근에 새로 건설된 평양유아원, 애육원은 조선의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직관적으로, 영연적으로 보여주고있다.

그 어느 나라, 어느 민족사에도 부모없는 아이들을 위해 이처럼 훌륭한 공원을 마련해준 사실은 없다.

이 나라 신문 《나호트킨스키 라보치》도 미국이 세기를 이어가며 바라는 사회주의조선의 《봉기》는 영원히 실현될수 없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로, 사회주의조선이 위대한 수령을 모신대 있었음으로써, 특출한 지도자로서 사상, 일심단결, 인민적정책으로 꼽았다.

사람중심의 주체사상에 의하여 함양되는 조선사회가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속에 최상의 정치적안정성을 발휘하고있는것은 지명만 리치인이라고 하면서 신문은 수령, 당, 대중이 하나의 운명공동체를 이루고있는 조선사회의 일심단결의 중심은 바로 김정은령도자이다. 조선인민은 이러한 사회제도를 농동자와 같이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고있으며 그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 미군은 남조선에서 하루빨리 철수하라

### 6. 25-7. 27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도이칠란드에서 성토모임 진행**

6. 25-7. 27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5일 도이칠란드 프랑켄주체사상연구소에서 반미성토모임이 진행되었다.

모임에서 소조책임자 마르쿠스 피들러를 비롯한 발언자들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반체제자적인 나라들을 압살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 공화국의 영상을 깎아내리고 사회주의제도를 말살하기 위해 온갖 비열한 수법을 동원해가며 미

성토모임 진행

6. 25-7. 27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5일 도이칠란드 프랑켄주체사상연구소에서 반미성토모임이 진행되었다.

모임에서 소조책임자 마르쿠스 피들러를 비롯한 발언자들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반체제자적인 나라들을 압살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 공화국의 영상을 깎아내리고 사회주의제도를 말살하기 위해 온갖 비열한 수법을 동원해가며 미

성토모임 진행

6. 25-7. 27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5일 도이칠란드 프랑켄주체사상연구소에서 반미성토모임이 진행되었다.

모임에서 소조책임자 마르쿠스 피들러를 비롯한 발언자들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반체제자적인 나라들을 압살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 공화국의 영상을 깎아내리고 사회주의제도를 말살하기 위해 온갖 비열한 수법을 동원해가며 미

성토모임 진행

6. 25-7. 27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5일 도이칠란드 프랑켄주체사상연구소에서 반미성토모임이 진행되었다.

모임에서 소조책임자 마르쿠스 피들러를 비롯한 발언자들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반체제자적인 나라들을 압살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 공화국의 영상을 깎아내리고 사회주의제도를 말살하기 위해 온갖 비열한 수법을 동원해가며 미

성토모임 진행

6. 25-7. 27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5일 도이칠란드 프랑켄주체사상연구소에서 반미성토모임이 진행되었다.

모임에서 소조책임자 마르쿠스 피들러를 비롯한 발언자들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반체제자적인 나라들을 압살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 공화국의 영상을 깎아내리고 사회주의제도를 말살하기 위해 온갖 비열한 수법을 동원해가며 미

# 로씨야에서 우리 나라 도서기증식 진행

우리 나라 도서기증식이 11일 로씨야 바르제잔스키시중양도서관에서 진행되었다.

도서기증식은 바르제잔스키시 의회, 행정부, 중앙노동조합의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정태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저작들, 우리 나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오늘을 현실을 소개하는 도서, 화

우리 나라 도서기증식이 11일 로씨야 바르제잔스키시중양도서관에서 진행되었다.

도서기증식은 바르제잔스키시 의회, 행정부, 중앙노동조합의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정태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저작들, 우리 나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오늘을 현실을 소개하는 도서, 화

우리 나라 도서기증식이 11일 로씨야 바르제잔스키시중양도서관에서 진행되었다.

도서기증식은 바르제잔스키시 의회, 행정부, 중앙노동조합의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정태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저작들, 우리 나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오늘을 현실을 소개하는 도서, 화

우리 나라 도서기증식이 11일 로씨야 바르제잔스키시중양도서관에서 진행되었다.

도서기증식은 바르제잔스키시 의회, 행정부, 중앙노동조합의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정태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저작들, 우리 나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오늘을 현실을 소개하는 도서, 화

# 로씨야 국제조약을 위반하고있는 미국과 나토를 비난

로씨야외무성이 최근 국제조약을 위반하고있는 미국과 나토를 비난하였다. 외무성은 국제조약에 따라 핵국가들이 핵무기 등에 대한 통제권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든 그 누구에게도 넘겨주는것이 금지되어있다고 언급하고 미국의 사측들이 나토성원국들인 유럽의 비핵국가들이 공동행동과 핵무기거래를 금지하여 참가하고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였다. 미국은 집요하게도 그러한 행동을 계속하고

로씨야외무성이 최근 국제조약을 위반하고있는 미국과 나토를 비난하였다. 외무성은 국제조약에 따라 핵국가들이 핵무기 등에 대한 통제권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든 그 누구에게도 넘겨주는것이 금지되어있다고 언급하고 미국의 사측들이 나토성원국들인 유럽의 비핵국가들이 공동행동과 핵무기거래를 금지하여 참가하고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였다. 미국은 집요하게도 그러한 행동을 계속하고

로씨야외무성이 최근 국제조약을 위반하고있는 미국과 나토를 비난하였다. 외무성은 국제조약에 따라 핵국가들이 핵무기 등에 대한 통제권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든 그 누구에게도 넘겨주는것이 금지되어있다고 언급하고 미국의 사측들이 나토성원국들인 유럽의 비핵국가들이 공동행동과 핵무기거래를 금지하여 참가하고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였다. 미국은 집요하게도 그러한 행동을 계속하고

로씨야외무성이 최근 국제조약을 위반하고있는 미국과 나토를 비난하였다. 외무성은 국제조약에 따라 핵국가들이 핵무기 등에 대한 통제권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든 그 누구에게도 넘겨주는것이 금지되어있다고 언급하고 미국의 사측들이 나토성원국들인 유럽의 비핵국가들이 공동행동과 핵무기거래를 금지하여 참가하고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였다. 미국은 집요하게도 그러한 행동을 계속하고

로씨야외무성이 최근 국제조약을 위반하고있는 미국과 나토를 비난하였다. 외무성은 국제조약에 따라 핵국가들이 핵무기 등에 대한 통제권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든 그 누구에게도 넘겨주는것이 금지되어있다고 언급하고 미국의 사측들이 나토성원국들인 유럽의 비핵국가들이 공동행동과 핵무기거래를 금지하여 참가하고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였다. 미국은 집요하게도 그러한 행동을 계속하고

# 사회적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소년노동운동가들 200만명에 달한다고 하였다.

문화유적보호노력

네팔에서 최근 나라의 문화유적보호사업에 힘을 냈고있다.

15일 이 나라 정부는 지난 4월에 있는 대지진으로 파괴되었던 까뜨만두에에 위치하고 있는 대사주의 문화유적들이 현상부유되도록 하였다.

키오산개척

케니아에서 올해에 4만 5000t의 커피를 생산할것을 계획하고있다. 11일 이 나라 정부가 밝혔다.

마약반대투쟁

폴로니아, 바나나, 코스타리카가 최근 20일동안에 마약범죄를 소탕하기 위한 해상협동작전을 벌였다.

작전과정에 코스타리카와 바나나에서 코카인을 비롯하여 2.3t

소년노동운동가들 200만명에 달한다고 하였다.

문화유적보호노력

네팔에서 최근 나라의 문화유적보호사업에 힘을 냈고있다.

15일 이 나라 정부는 지난 4월에 있는 대지진으로 파괴되었던 까뜨만두에에 위치하고 있는 대사주의 문화유적들이 현상부유되도록 하였다.

키오산개척

케니아에서 올해에 4만 5000t의 커피를 생산할것을 계획하고있다. 11일 이 나라 정부가 밝혔다.

마약반대투쟁

폴로니아, 바나나, 코스타리카가 최근 20일동안에 마약범죄를 소탕하기 위한 해상협동작전을 벌였다.

작전과정에 코스타리카와 바나나에서 코카인을 비롯하여 2.3t

소년노동운동가들 200만명에 달한다고 하였다.

문화유적보호노력

네팔에서 최근 나라의 문화유적보호사업에 힘을 냈고있다.

15일 이 나라 정부는 지난 4월에 있는 대지진으로 파괴되었던 까뜨만두에에 위치하고 있는 대사주의 문화유적들이 현상부유되도록 하였다.

키오산개척

케니아에서 올해에 4만 5000t의 커피를 생산할것을 계획하고있다. 11일 이 나라 정부가 밝혔다.

마약반대투쟁

폴로니아, 바나나, 코스타리카가 최근 20일동안에 마약범죄를 소탕하기 위한 해상협동작전을 벌였다.

작전과정에 코스타리카와 바나나에서 코카인을 비롯하여 2.3t

소년노동운동가들 200만명에 달한다고 하였다.

문화유적보호노력

네팔에서 최근 나라의 문화유적보호사업에 힘을 냈고있다.

15일 이 나라 정부는 지난 4월에 있는 대지진으로 파괴되었던 까뜨만두에에 위치하고 있는 대사주의 문화유적들이 현상부유되도록 하였다.

키오산개척

케니아에서 올해에 4만 5000t의 커피를 생산할것을 계획하고있다. 11일 이 나라 정부가 밝혔다.

마약반대투쟁

폴로니아, 바나나, 코스타리카가 최근 20일동안에 마약범죄를 소탕하기 위한 해상협동작전을 벌였다.

작전과정에 코스타리카와 바나나에서 코카인을 비롯하여 2.3t

#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

이란대통령 하산 루하니가 14일 한 집회에서 연설하면서 서방의 제재를 끝장내고 나라의 경제를 추켜세울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이란정부는 서방의 경제제재를 두려워하지 않지만 그것이 지속되는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제재를 철회를 위해 계속 투쟁해나갈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제재가 해제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정부가 경제난문제를 해결하고 인민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란대통령 하산 루하니가 14일 한 집회에서 연설하면서 서방의 제재를 끝장내고 나라의 경제를 추켜세울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이란정부는 서방의 경제제재를 두려워하지 않지만 그것이 지속되는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제재를 철회를 위해 계속 투쟁해나갈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제재가 해제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정부가 경제난문제를 해결하고 인민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란대통령 하산 루하니가 14일 한 집회에서 연설하면서 서방의 제재를 끝장내고 나라의 경제를 추켜세울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이란정부는 서방의 경제제재를 두려워하지 않지만 그것이 지속되는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제재를 철회를 위해 계속 투쟁해나갈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제재가 해제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정부가 경제난문제를 해결하고 인민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란대통령 하산 루하니가 14일 한 집회에서 연설하면서 서방의 제재를 끝장내고 나라의 경제를 추켜세울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이란정부는 서방의 경제제재를 두려워하지 않지만 그것이 지속되는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제재를 철회를 위해 계속 투쟁해나갈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제재가 해제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정부가 경제난문제를 해결하고 인민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란대통령 하산 루하니가 14일 한 집회에서 연설하면서 서방의 제재를 끝장내고 나라의 경제를 추켜세울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이란정부는 서방의 경제제재를 두려워하지 않지만 그것이 지속되는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제재를 철회를 위해 계속 투쟁해나갈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제재가 해제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정부가 경제난문제를 해결하고 인민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적대시정책을 고집하는자들에게는 안식처가 없다

미호전분자들이 발전잠을 자지 못하고 있다고 아우성쳐서 경고하는데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대조선적대시정책이 맞으면 필연적사실이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은 일제의 패망과 함께 남조선은 군사적으로 강점된 때로부터 개시되었다.

우리는 우리의 적으로 규정하고 애당초 우리의 자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우리는 인민이 선택한 제도를 뒤엎어준다는 목적에 우리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가장시켰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악랄성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인 핵공격을 통하여 더욱 잘 알수 있다. 남조선을 강점한 첫날부터 공화국을 침략하기 위한 발판으로 전면시킨 미국이 핵무기를 어떻게 휘둘렀는가.

조선전쟁을 도발한 미제는 1950년 8월 핵무기를 끌어들었다 그 때때에는 중동지역에 원자탄 30~50개를 투하할 계획을 로골적으로 내비쳤다.

미국의 핵위협은 우리에게 대한 핵무기 사용을 공공연히 선포하는데 더욱 드러났다. 미제무장강점 《투에블로》호가 나포되었을 때 핵무기로 위협하였으나 대항간첩비행기(KC-119)이 우리 영공에서 격추되었을 때에도 핵무기를 탑재한 폭격기들을 비상대기시키고 핵무기 사용을 공언하였다.

새 세기에 들어서서 핵공격은 더욱로 골격으로 감행되었다. 2001년 6월 부쉬는 조선이 핵사찰수락, 미사일개발과 발사금지, 상용무기의 축감 등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지 않을 경우 핵을 포함한 군사적행동을 행사할수 있다는 《성

미호전분자들이 발전잠을 자지 못하고 있다고 아우성쳐서 경고하는데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대조선적대시정책이 맞으면 필연적사실이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은 일제의 패망과 함께 남조선은 군사적으로 강점된 때로부터 개시되었다.

우리는 우리의 적으로 규정하고 애당초 우리의 자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우리는 인민이 선택한 제도를 뒤엎어준다는 목적에 우리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가장시켰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악랄성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인 핵공격을 통하여 더욱 잘 알수 있다. 남조선을 강점한 첫날부터 공화국을 침략하기 위한 발판으로 전면시킨 미국이 핵무기를 어떻게 휘둘렀는가.

조선전쟁을 도발한 미제는 1950년 8월 핵무기를 끌어들었다 그 때때에는 중동지역에 원자탄 30~50개를 투하할 계획을 로골적으로 내비쳤다.

미국의 핵위협은 우리에게 대한 핵무기 사용을 공공연히 선포하는데 더욱 드러났다. 미제무장강점 《투에블로》호가 나포되었을 때 핵무기로 위협하였으나 대항간첩비행기(KC-119)이 우리 영공에서 격추되었을 때에도 핵무기를 탑재한 폭격기들을 비상대기시키고 핵무기 사용을 공언하였다.

새 세기에 들어서서 핵공격은 더욱로 골격으로 감행되었다. 2001년 6월 부쉬는 조선이 핵사찰수락, 미사일개발과 발사금지, 상용무기의 축감 등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지 않을 경우 핵을 포함한 군사적행동을 행사할수 있다는 《성

미호전분자들이 발전잠을 자지 못하고 있다고 아우성쳐서 경고하는데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대조선적대시정책이 맞으면 필연적사실이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은 일제의 패망과 함께 남조선은 군사적으로 강점된 때로부터 개시되었다.

우리는 우리의 적으로 규정하고 애당초 우리의 자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우리는 인민이 선택한 제도를 뒤엎어준다는 목적에 우리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가장시켰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악랄성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인 핵공격을 통하여 더욱 잘 알수 있다. 남조선을 강점한 첫날부터 공화국을 침략하기 위한 발판으로 전면시킨 미국이 핵무기를 어떻게 휘둘렀는가.

조선전쟁을 도발한 미제는 1950년 8월 핵무기를 끌어들었다 그 때때에는 중동지역에 원자탄 30~50개를 투하할 계획을 로골적으로 내비쳤다.

미국의 핵위협은 우리에게 대한 핵무기 사용을 공공연히 선포하는데 더욱 드러났다. 미제무장강점 《투에블로》호가 나포되었을 때 핵무기로 위협하였으나 대항간첩비행기(KC-119)이 우리 영공에서 격추되었을 때에도 핵무기를 탑재한 폭격기들을 비상대기시키고 핵무기 사용을 공언하였다.

새 세기에 들어서서 핵공격은 더욱로 골격으로 감행되었다. 2001년 6월 부쉬는 조선이 핵사찰수락, 미사일개발과 발사금지, 상용무기의 축감 등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지 않을 경우 핵을 포함한 군사적행동을 행사할수 있다는 《성

미호전분자들이 발전잠을 자지 못하고 있다고 아우성쳐서 경고하는데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대조선적대시정책이 맞으면 필연적사실이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은 일제의 패망과 함께 남조선은 군사적으로 강점된 때로부터 개시되었다.

우리는 우리의 적으로 규정하고 애당초 우리의 자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우리는 인민이 선택한 제도를 뒤엎어준다는 목적에 우리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가장시켰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악랄성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인 핵공격을 통하여 더욱 잘 알수 있다. 남조선을 강점한 첫날부터 공화국을 침략하기 위한 발판으로 전면시킨 미국이 핵무기를 어떻게 휘둘렀는가.

조선전쟁을 도발한 미제는 1950년 8월 핵무기를 끌어들었다 그 때때에는 중동지역에 원자탄 30~50개를 투하할 계획을 로골적으로 내비쳤다.

미국의 핵위협은 우리에게 대한 핵무기 사용을 공공연히 선포하는데 더욱 드러났다. 미제무장강점 《투에블로》호가 나포되었을 때 핵무기로 위협하였으나 대항간첩비행기(KC-119)이 우리 영공에서 격추되었을 때에도 핵무기를 탑재한 폭격기들을 비상대기시키고 핵무기 사용을 공언하였다.

새 세기에 들어서서 핵공격은 더욱로 골격으로 감행되었다. 2001년 6월 부쉬는 조선이 핵사찰수락, 미사일개발과 발사금지, 상용무기의 축감 등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지 않을 경우 핵을 포함한 군사적행동을 행사할수 있다는 《성

# 미국인들 빈부격차의 증대에 불만

미국인들속에서 날로 심해지는 빈부격차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있다.

최근 이 나라 신문 《뉴욕 타임스》와 CBS방송이 전국적인

미국인들속에서 날로 심해지는 빈부격차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있다.

최근 이 나라 신문 《뉴욕 타임스》와 CBS방송이 전국적인

미국인들속에서 날로 심해지는 빈부격차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있다.

최근 이 나라 신문 《뉴욕 타임스》와 CBS방송이 전국적인

미국인들속에서 날로 심해지는 빈부격차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있다.

최근 이 나라 신문 《뉴욕 타임스》와 CBS방송이 전국적인

미국인들속에서 날로 심해지는 빈부격차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있다.

최근 이 나라 신문 《뉴욕 타임스》와 CBS방송이 전국적인

미국인들속에서 날로 심해지는 빈부격차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있다.

최근 이 나라 신문 《뉴욕 타임스》와 CBS방송이 전국적인

미국인들속에서 날로 심해지는 빈부격차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있다.

최근 이 나라 신문 《뉴욕 타임스》와 CBS방송이 전국적인

미국인들속에서 날로 심해지는 빈부격차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있다.

최근 이 나라 신문 《뉴욕 타임스》와 CBS방송이 전국적인

미국인들속에서 날로 심해지는 빈부격차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있다.

최근 이 나라 신문 《뉴욕 타임스》와 CBS방송이 전국적인